

2015.11.27.(금) 조간(온라인은 11.26.12:00) 이후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대전(본원): 대외협력실 이식 042 - 869 - 0960 / 강동기 0967
문의: 강현무 충청지원장(0673)

배포번호 : 2015-53

매수 : 보도자료 2매

배포처 : 대외협력실

배포일자 : 2015.11.26.(목)

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지식교류의 장, 첫 출발

- KISTI, '밸류 체인 기반 지능형 자동차부품지식연구회' 출범해 신성장동력 발굴 및 연구 추진 -
- 현대다이모스, 한일이화, 이레오토모티브시스템 등 3개 대기업과 100 여 개의 중소기업 참여 -

- 자동차 부품 및 소재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동반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교류의 장을 열렸다.
-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원장 한선화, 이하 KISTI)이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3시 현대다이모스 동탄연구소에서 자동차 부품 및 소재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'밸류 체인(Value-chain) 기반 지능형 자동차부품지식연구회(이하 밸류 체인 지식연구회*)'를 설립한다.
 - * 밸류 체인 기반 지식연구회: 마이클 포터가 정립한 '가치사슬(Value-chain) 모델에 착안해, 특정 산업에 연관된 여러 주체(대기업-중소기업-공공영역)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
 - o 현대다이모스, 한일이화, 이레오토모티브시스템(구 한국델파이) 등 3개 대기업과 100 여 개의 중소기업이 밸류 체인 지식연구회에 참여한다.
- 밸류 체인 지식연구회와 참여기업들은 앞으로 함께 미래 성장동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동시에 관련 핵심요소 기술을 개발·생산할 예정이다.
 - o KISTI는 참여기업을 위해 R&D 인프라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한편, 시장·기술 정보 및 관련 활용 교육을 제공한다.
- 먼저 대기업의 관심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과 중소기업이 함께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템을 발굴하고, 이어서 세부 분야별로 시장의 경쟁

상황·성장 가능성·위험 수준 등을 분석한 뒤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사업화를 추진한다.

- 구체적으로 ▲지능형 시트 ▲고감성 편익장치 ▲카메라 안전부품 등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대학 교수·출연(연) 연구원·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전문가 그룹으로서 지원한다.

□ 밸류 체인 지식연구회는 KISTI가 그동안 중소기업협의체인 과학기술정보협의회(ASTI)* 활성화의 일환으로 운영해온 지역별 특화산업 위주의 지식연구회를 발전시킨 모델이다.

* 과학기술정보협의회(ASTI): KISTI가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에 조직한 협의체로서 2015년 현재 8,000 여 중소기업 CEO·CTO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 등 총 12,000 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. 기존에는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20개의 지식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었다.

-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특정 산업을 기반으로 운영하게 되면서, 대기업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중소기업은 신기술 개발 및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유재영 KISTI 중소기업혁신본부장은 “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·기업교류·공동연구개발·신사업 발굴 등 새로운 기회 창출은 물론 상생의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(끝)